

딱 한 잔만 ... 식당서 '잔술' 판매할 수 있다



▲ 올 6월부터는 주류 판매 업소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국에서 식당 등 주류 판매 업소의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1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6월 중에 시행된다.

작년 4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 여성이 남성 두 배

지난해 한국의 4분기 기준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1년새 약 3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다.



▲ 한 여성이 구인광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전년 동기(2045만6000개) 대비 29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2년 4분기(49만1000개)보다 19만8000개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를 기록한 다음 분기마다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년 전보다 10

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9만7000개)와 40대(-2만4000개)에선 감소했고, 60대 이상(24만9000개)과 50대(11만3000개), 30대(5만2000개)는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5분기 연속 임금 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만7000개 늘어 전반적인 증가를 이끌었다. 숙박·음식 분야(3만9000개)와 운수·창고 분야(3만8000개)가 뒤를 이었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여성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를 앞질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남성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8만9000개 증가한 반면 여성 일자리는 20만4000개 늘어났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주로 여성들이 취업한 영향

수도권 월세 비중 사상 최대 ... 전세 사기 여파

올해 1분기 한국의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은 전날, 올해 1~3월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5만891건 가운데 54.1%인 2만7510건이 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 비중은 2020년 1분기 31.5%에서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점점 가파르게 늘었다.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경기는 올해 1분기 소형 빌라 월세 거래가 7916건으로 전세 임대차 1만4361건의 55.1%를 차지했다. 서울은 3만3043건 중 1만7937건으로 54.3%였다. 인천은 3487건 중 47.5%인 1657건으로 절반을 넘기지 않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67.2%)로 70%에 육박했다. 이어 서대문 65.7%, 종로 64.5%, 송파 63.9%, 관악 63.1%, 노원 60.4% 순으로 60%를 넘겼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